

## 봉독 팔아도 **고소득** 가능 봉독 회수율, 외국산보다 우수



지난 2005년 농촌진흥청이 봉독 채집장치를 개발함에 따라 봉독 대량 수집이 가능해졌다. 벌통의 소문(벌이 드나드는 문) 앞에 채집장치를 설치하면 벌

들이 적이 침입한 것으로 알고 장치에 몰려든다. 이 장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약한 전류가 흘러 벌이 전기자극을 받아 봉독을 분비하게 되는 원리다.

채집장치는 작동 후 1시간이 넘지 않아야 채밀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 그러나 주2회 이상 봉독을 채집하게 되면 벌이 사나워지고 채밀량도 감

소하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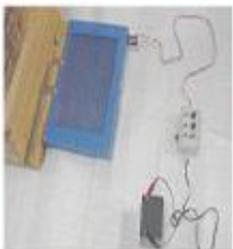
국산 봉독 채집기는 안전성과 편리성, 내구성, 가격 면에서 외국산보다 우수하다. 국산은 외국산에 견줘 봉독 회수율도 20% 이상 증가하고, 사봉(죽은 벌) 수도 외국산의 1/15~1/30에 불과하다.

현재, 농가에서 채취된 봉독은 g당 10만원에 수매되고 있는데, 지난해 국내에서 약 1kg의 봉독이 채집됐다. 이는 국내 전체 170만 봉군의 0.02%에 불과한 양이다. 만약 국내 봉군의 1%에서 봉독을 생산할 경우, 국내 출하 돼지의 10~14%에 처리할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또, 양봉농가의 경우 농가당 벌꿀소득이 2천563여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, 봉독을 생산할 경우 이와 비슷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농촌여성신문 송재선 기자

### □ 봉독 채집 과정



소문 앞 봉독 채집장치 설치



소문 앞 봉독 채집장치 설치후 5분 경과



채집된 봉독



정제 전 봉독



정제 후 봉독